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	
		배포일자	2023년 7월 21일(금) 총 4매		
담당 부서	시정혁신 담당관	담 당 자	• 행정혁신팀장 박민영 ☎440-1651 • 담당자 최미경 ☎440-1653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공직자 창조혁신 개발대회 개최

- 최우수상에 ‘시내버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포트홀 실시간 감지서비스’ 선정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공직자 창조혁신 개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‘인천시 공직자 창조혁신 개발대회’는 공직자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하는 창안대회다.

민생안정과 위기관리 분야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서는 53건의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으며, 예선심사를 통과한 20개 제안 중 이날 최종심사에서 우수 제안 10건이 선정됐다.

특히 이번 대회에는 시민 행복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눈길을 끌었다.

그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‘ 시내버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포트홀 실시간 감지서비스’ 는 시내버스에 도로분석 기능이 장착된 카메라로 포트홀 등 도로 위의 모든 위험물을 인식하고, 인공지능(AI) 정밀분석을 통해 위험도 및 긴급순위를 결정해 담당 공무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이다. 이 제안은 포트홀 처리시간 단축 등 시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이 밖에 우수(2건) ‘ 인천시 후원명칭 도용, 더 이상은 없다!’ ‘ 지방세 전자민원 신청기(키오스크) 도입방안’ , 장려(3건) ‘ 지하철 발광다이오드(LED) 혼잡도 표시등’ 설치’ ‘ 관광 디저트 ‘ 인천샌드’ 개발로 매력만점 ‘ 맛도시’ 구현’ ‘ ‘ 시민 우선 예약제’ 를 통한 인천 시민의 특권 확대’ 등 육아, 관광, 시정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아이디어들이 소개됐다.

이번 창조혁신개발대회에는 ‘ 창조’ 시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으며, 선정된 우수 제안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.

유정복 인천시장은 “ ‘ 열심’ , ‘ 성실’ 은 일에 대한 기본자세로 그것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으며, 중요한 것은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늘리는 것” 이라며 “공직자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해야 창조혁신의 시너지가 발휘할 수 있다” 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



※ 그밖에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'인천시 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
<참고>

연번	연구팀	시상결과
1	시내버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포트홀 실시간 감지서비스	최우수
2	인천광역시 후원명칭 도용, 더 이상은 없다!	우수
3	지방세 전자민원신청기(키오스크) 도입방안	우수
4	지하철 ‘LED 혼잡도 표시등’ 설치	장려
5	관광 디저트 ‘인천샌드’ 개발로 매력만점 ‘맛도시’ 구현	장려
6	「시민 우선 예약제」를 통한 인천시민의 특권 확대	장려
7	2045 탄소중립, 누가 먼저? 용기낸 사람 먼저!	노력
8	먹고·보고·즐기자! 「Only 인천」 관광상품 제안	노력
9	육아용품 대여, 걱정은 던져두고!	노력
10	120 미추홀콜센터, 보이는 ARS 도입	노력